

한국출판편집자상

Korean Publishing
Editor Award

2025
제4회

6. 한국출판편집자상 역대 수상자

5. 제4회 수상자

대상 금상 공로상 특별상 특별상
박은덕 · 조신우 · 인경숙 · 김종진 · 박승수

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 한봉숙 · 이종백

3. 심사총평

수상자 선정 결과 · 수상자별 선정 이유

2.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철미

1. 재단 소개

재단 소개 · 출판진흥사업 · 재단 연혁

제4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식순

The Program of
Korean Publishing Editor Award

01

개식

02

국민의례

03

내빈소개

04

개회인사말

05

심사위원 소개

06

심사총평

07

대상 시상

08

금상 시상

09

공로상 시상

10

특별상 시상

11

폐식

Contents

1. 재단 소개	[03]
2. 인사말	[04]
3. 심사총평	[05]
4. 심사위원의 말	[07]
5. 수상자	[10]
6. 한국출판편집자상 역대수상자	[20]

1. 재단 소개

재단 소개 · 출판진흥사업 · 재단 연혁

재단 소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발전과 출판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9년 7월 7일 (사)한국출판금고로 출범하여 2002년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5년 현재까지 56년간 지속 사업 중인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입니다.

출판진흥사업

01. 출판자금융자 사업(출판사 대상)
02.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직원 대상)
03. 단기출판자금융자 사업(어음할인)
04. 출판유통현대화융자 사업
05. 출판정보화융자 사업
06.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선정·보급 사업
07. 한국출판편집자상 사업
08. 출판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
09. 출판계 연구소 지원사업
10. 출판계 단체 지원사업

[03]

재단 연혁

- 1969. 07. 07 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창립(초대 민유동 이사장 취임)
- 1972. 09. 중앙도서전시관 운영(1988년 12월까지 운영)
- 1974. 04. 출판자금융자 사업 개시
- 1985. 12. 24.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설립(초대 정진숙 이사장 취임)
- 2002. 11. 28.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2. 11. 24. 제1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개최
- 2023. 11. 23. 제2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개최
- 2024. 03. 제7대 김철미 이사장 취임
- 2024. 11. 20.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개최

2.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철미



출판편집자상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은 묵묵히 수고해 온 편집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최근 출판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원고를 다듬고, 교정하고, 번역하고, 심지어 글을 쓰는 일까지 AI가 빠르게 해내고 있습니다. 출판 현장, 특히 편집 분야에서 그 변화는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집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의 본질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효율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한 문장에 담긴 뉘앙스,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감수성을 이어주는 섬세한 해석은 결국 편집자의 몫입니다. 그만큼 편집자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역할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도전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욱 소중합니다. 출판인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는 과정 자체가 곧 희망이 됩니다.

출판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게 달려 있다는 믿음 아래,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출판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출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대 간 소통을 넓히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력 있고 유능한 출판편집자들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 닥쳐올 여러 도전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고민을 나누며, 때로는 한술밥을 나누며 정을 쌓는다면 출판 공동체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덜어주며 함께 나아갈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불안은 희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출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깔고, 기댈 언덕이 되고 싶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함께 희망을 찾아나가고 싶습니다.

AI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모두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이 속담이 절실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의 길이 멀고 때로는 험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2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철미

3. 심사총평

수상자 선정 결과 · 수상자별 선정 이유

한국출판편집자상은 제4회를 맞은 올해에도 많은 응모가 있었는데, 모두 오랫동안 출판계에서 활동하며 소중한 업적을 쌓아온 분들이었다. 후보자 자격은 작년처럼 15년 이상이 아닌 10년 이상 근무한 편집자로 정했지만,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10년이 훨씬 넘는 경력자들이 많았다.

심사의 기준은 예년처럼 다음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편집관이 뚜렷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

둘째, 출판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치 있고 오래 읽히는 책을 기획·편집한 사람.

셋째, 제출된 출판물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36인의 후보자들의 활동 내용과 출판 편집 실적물 및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살피고 의견을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심사위원들은 여러 번 모여 논의를 거듭하며, 고뇌 어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여 대상 1인, 금상 1인, 공로상 1인, 특별상 2인을 선정하였다.

수상자 선정 결과와 수상자별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상자 선정 결과

대상 | 박은덕

금상 | 조선우

공로상 | 안경숙

특별상 | 김종진

특별상 | 박승수

수상자별 선정 이유

대상 수상자 | 박은덕

수상자는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하여 28년간 그림책과 아동도서 편집에 전념함으로써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그는 국내를 넘어, BIB 그랑프리상,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 최고의 출판사 상 등의 수상에 기획·편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CJ그림책 축제, 산림청 주최 동화공모전 등 각종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신인 작가의 발굴과 양성에도 공헌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획·편집물로는, BIB(황금사과상)을 받은 『어느 날』, 한국 최초 실크스크린 수작업 그림책인 『나무들의 밤』, 나미콩쿠르 그랑프리를 수상한 『신기한 목탁 소리』, ‘2025년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대상’을 받은 『꽃에 미친 김 군』 등이 있다.

오늘도 그림책의 기획·편집에 몰두하고 있는 수상자는 “그림책이 아이에게는 기쁨을, 어른에게는 사유와 몰입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림책의 본질을 지켜가면서도, 시대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편집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금상 수상자 | 조선우

수상자는 2001년 이래 교육전문지 기자, 출판사 ‘책읽는귀족’의 기획·편집자 겸 작가로 활동하며 문장을 붙잡고 책을 만드는 삶을 살아왔다. 특히, “진정성 있는 독서를 통해 사람은 명품, 다시 말해 귀족이 된다.”라는 신념 아래, 인문학 및 어린이 청소년 도서의 편집에 전념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인 편집 출판물로는 『내 손 안의 인문학, 꿈의 문』, 『피노키오와 함께하는 생각 여행』, 『북유럽 신화, 재밌고도 멋진 이야기』, 『소년, 꿈을 찾아 길을 나서다』 등이 있다.

수상자는 출판 행위는 “한 사람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한 시대

의 감각을 담아내는 일”이라는 믿음 속에서 “책이라는 형식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사람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다. 아울러, “책을 사랑하기에 출판을 택했고, 문장을 믿기에 편집자의 삶을 선택”한 그는 “책이 단지 학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증거가 되는 경험을 설계”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공로상 수상자 | 안경숙

수상자는 1999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6년간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편집에 전념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웅진주니어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문학나눔,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북스타트 등에 선정되는 다수의 서적을 기획·편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판의 수출에도 크게 공헌했다.

대표적인 편집 출판물로는, 2025 USBBY(The United States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우수 국제도서 『친구의 전설』, 2024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달리다 보면』,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수상 도서 『엄마 도감』 등이다.

그는 “감동적인 많은 이야기를 만나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린이책 편집자의 일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일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손을 거치는 책들에 후회가 남지 않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책을 향한 존중과 애정, 그 무게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편집자의 길을 가고 있다.

특별상 수상자 | 김중진

수상자는 2004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1년간 다양한 도서의 기획·편집자로 활동해 왔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청소년 대상 책의 편집에 전념함으로써 어린이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가장 가까운 스승이자 친구’로서 책의 역할을 무겁게 느껴, 편집자 자신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편집 출판물로는, 다빈치의 업적을 어린이용 판타지 동화로 전달하는 『우리 반 다빈치』, 독립운동가 이봉창의 업적과 그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는 『우리 반 이봉창』, 곤충과 기후

위기라는 두 가지 주제를 접목해 생태계와 기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곤충에서 찾은 기후 위기 이야기』, 노동 문제가 우리 가족 구성원의 실제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우리 가족에서 찾은 노동 인권 이야기』 등이 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들이지만, 독립운동, 기후 위기, 노동 인권 등 굵직한 주제들을 그들의 감수성에 어울리게 담아내고 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책”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좋은 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별상 수상자 | 박승수

수상자는 2007년 자유아카데미에 입사하여 18년간 과학 학술서 편집에 전념해 왔다. 과학 학술서 출판시장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한길을 걸어오며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인 편집 출판물로는 『복잡계 과학 이야기』, 과학과 문화를 한 형식으로 조망하며 역사와 사회 속 과학의 형성과 작동 방식을 그려낸 『과학문화, 난쟁이와 거인의 노래』,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 환경 호르몬, 폐플라스틱, 탄소중립 등 ‘위드 플라스틱 시대’의 쟁점을 짚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화학으로 읽는 플라스틱 연대기』 등이 있다.

200여 종 이상의 학술서를 편집해 온 그는, “학술서 편집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읽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편집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해외 번역물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과학 분야에서 해외 도서에 뒤지지 않는 한국의 과학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출판편집자상 제도가 출판계 곳곳에서 분투하는 편집자들에게 격려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출판문화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한국출판편집자상을 빛내주기 바란다.

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 한봉숙 · 이종백

부길만 심사위원

한국출판편집자상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4년이 되었다. 그동안 출판계에서 묵묵히 일하며 귀한 업적을 쌓아왔고, 한국문화사에 길이 남을 출판물을 만들어 낸 편집자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지속시켜온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 경의를 표한다.

올해도 예년처럼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신 것을 보며, 이제는 편집자상 제도가 정착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그림책과 아동·청소년 도서 분야에서 활동한 분들이 응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그 외에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다수의 편집자들도 응모에 참여해주셨으니, 이 역시 고마운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학술서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편집자들의 응모가 예년에 비해 저조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많은 편집자들이 적극 참여해주셨으면 한다.



[06]

[07]

우리나라 출판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외국어대 독어과를 졸업한 이후 영국 셀리오크 대학을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출판잡지를 전공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책의 역사』, 『출판산업 발전과 독서진흥』, 『한국 출판의 흐름과 과제』,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출판학의 미래』, 『한국 출판 역사』, 『지역사회의 책문화 살리기』, 『우리 책과 한국사 이야기』 등이 있다.

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 한봉숙 · 이종백

한봉숙 심사위원

한국출판편집자상은 출판문화를 이끌어가는 편집기획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상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는 사실에 편집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심사위원으로서의 부담감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며, 일상생활, 직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출판계 역시 시대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챗지피티가 명령하는 대로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오탈자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책 한 권을 만들어가는 편집자의 창의적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AI의 기능이 확장되는 만큼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으로 책의 가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편집자의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편집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저자를 발굴하여 소통하고, 세심한 편집과 참신한 디자인으로 원고를 어루만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감성과 인식을 물성으로 빚어내는 것이 진정한 편집자의 역할입니다. 즉 편집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여 독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지금의 출판계가 있고, 앞으로도 한국 출판문화를 발전시키고 K-컬처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출판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상한 분들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오랜 세월 책과 함께해온 편집자들 모두에게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만드는 편집자들이 계속해서 참여하여 10년 후, 20년 후까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대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계간 『푸른사상』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역임. 함께 쓴 책으로 『문득, 로그인』 『여자들의 여행 수다』, 『우리, 그곳에 가면』, 『그들과 함께 꿈꾸다』, 『여자들의 욕망엔 색이 있다』 등이 있다. 제32회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2018), 제39회 책의 날 대통령 표창(2025) 등을 수상하였다.



[08]

[09]

이종백 심사위원

편집자는 저자와 함께 책이 나오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존재는 책으로만 드러낼 뿐이다. 지원한 편집자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책과 소개 글을 살펴보면, 저마다의 고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그림책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는 인상적이었다. 짧은 분량 속에 주제를 응축하고, 작가와 작품 세계를 넘나들며 상상력과 운율, 서사를 밀도 있게 담아냈다. 성인 독자에게도 올림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시각을 자극하는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탄탄한 기획과 유려한 문장, 물성을 살린 디자인과 제작이 어우러진 책을 만든 편집자들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출판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 비롯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편집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실은, 편집자의 공지와 성실한 노고로 완성된 책만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한국출판편집자상’의 수상이 편집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편집자들에게 깊은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영남대학교 출판부에 입사한 후, 34년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대학출판협회 실무위원장, 부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있다. 2018년 올해의 대학출판인상 본상, 2022년 제36회 ‘책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표 작업 도서로 『한국문화사상대계』(전4권), 『퇴계시풀이』(전9권), 『주희시 역주』(전5권), 『한국, 일본, 중국 연력대전』(전6권), 『인문학육성총서』(32종), 『바다의 왕국들』, 『8세기 말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두 갈래 여정』을 비롯해 한국학과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서들을 꾸준히 펴냈다. 아울러 제2회 한국출판편집자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5.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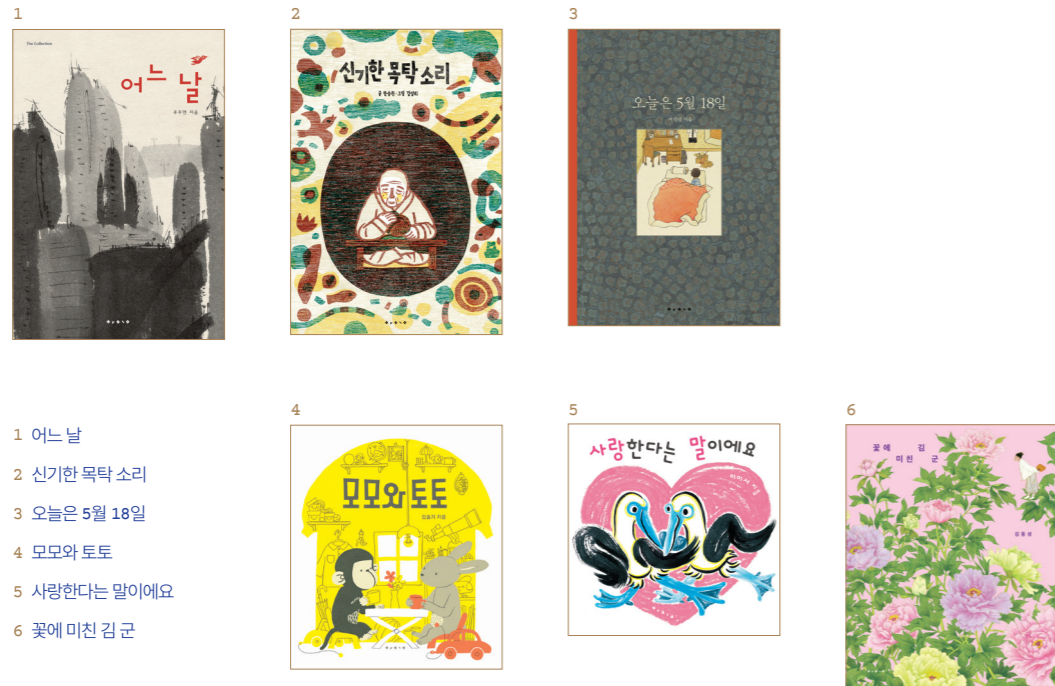
박은덕 · 조선우 · 안경숙 · 김종진 · 박승수

대상
박은덕(朴恩德)



1997년 한림출판사에 입사해 한국 그림책의 기초를 배우며 다양한 해외 작품을 소개했고, 『수호의 하얀 말』을 통해 그림책 본질을 지키는 편집 철학을 다졌다. 2009년 보림출판사로 옮겨 현재까지 창작 그림책과 기획 시리즈에 전념하며 아시아 그림책을 조명한 ‘땅별그림책’, 전 연령을 위한 ‘더컬렉션’,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아트사이언스’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왔다. 『어느 날』로 BIB 그랑프리과 황금사과상을 받았고, 시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시그림책 『신기한 목탁 소리』로 나미콩쿠르 그랑프리를 받아 국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7년 보림출판사가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출판사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함께했다. 2025년에는 『꽃에 미친 김 군』을 기획·편집하여 ‘한국에서 가장 즐거운 책 대상’과 대한민국 그림책상 특별상(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대표작



- 1 어느 날
- 2 신기한 목탁 소리
- 3 오늘은 5월 18일
- 4 모모와 토토
- 5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 6 꽃에 미친 김 군

[10]

[11]

원주 출장길에서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풍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1997년 처음 그림책 편집자의 일을 시작하여 그동안 힘들고 지칠 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계속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로 그림책을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이번 편집자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대표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름 오래도록 그림책을 만들어 왔는데도 선뜻 떠오르는 그림책이 많지 않아 괴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편집자가 되고 싶느냐고 물으면, 늘 “머리 회곳한 할머니 편집자”가 되고 싶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편집을 하며 큰 상을 받게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이 일을 누구보다 좋아하면서도 늘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책 편집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보편적 가치관을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넓게 아우르는 동시에, 그림에 대한 깊은 미감 또한 필요합니다. 이 중 무엇 하나 크게 잘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 늘 편집자로서 자주 버거움을 느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림책을 만들며 위촉된 저를 위로해 준 건 역시 그림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책은 늘 제게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소장의 기쁨 The Collection

《The Collection》 시리즈는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획한 소장용 그림책 시리즈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른도 즐기는 그림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른 스스로가 보는 그림책’이 가능할까 회의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시도는 저에게 편집자로서 흥미롭고 설레는 도전이었습니다. 2010년에 출간된 『어느 날』은 76쪽이

수상자 소감

라는 긴 호흡과 수묵화라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 어른들이 알고 소장하는 그림책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몰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꽃에 미친 김 군』

2025년 출간된 『꽃에 미친 김 군』은 저에게 더욱 특별한 책입니다. 정민 선생님의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을 읽다가 조선 후기 실존 인물인 ‘김덕형’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도 꽃을 좋아해, 꽃을 주제로 하는 그림책을 만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 책은 계약한 지 무려 1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만난 작품이었습니다. 김동성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함께 한 첫 시도였고 작가님께서 그간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은 작업을 해 오셨지만 저는 작가님의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때에 이 책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꽃에 미친 김 군』은 작가님과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책을 연상시키는 노출 제본을 선택하고, 책장이 전부 잘 펼쳐지도록 제작했습니다. 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 다만 제가 잘 알고, 또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만든 그림책이었고, 독자들에게 몰입의 순간을 알려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자분들이 알아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상을 권유해 주신 권종택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매일의 출근길을 설레게 하는 든든한 동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는 남편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상은 제 개인의 성취라기보다, 그동안 저와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 주신 수많은 작가님과 출판 동료들이 함께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앞으로 자주 버겁겠지만, 그림책은 늘 저를 앞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림책이 제게 친구이자 스승이듯, 앞으로도 저는 그림책과 함께 성장하며 그림책 편집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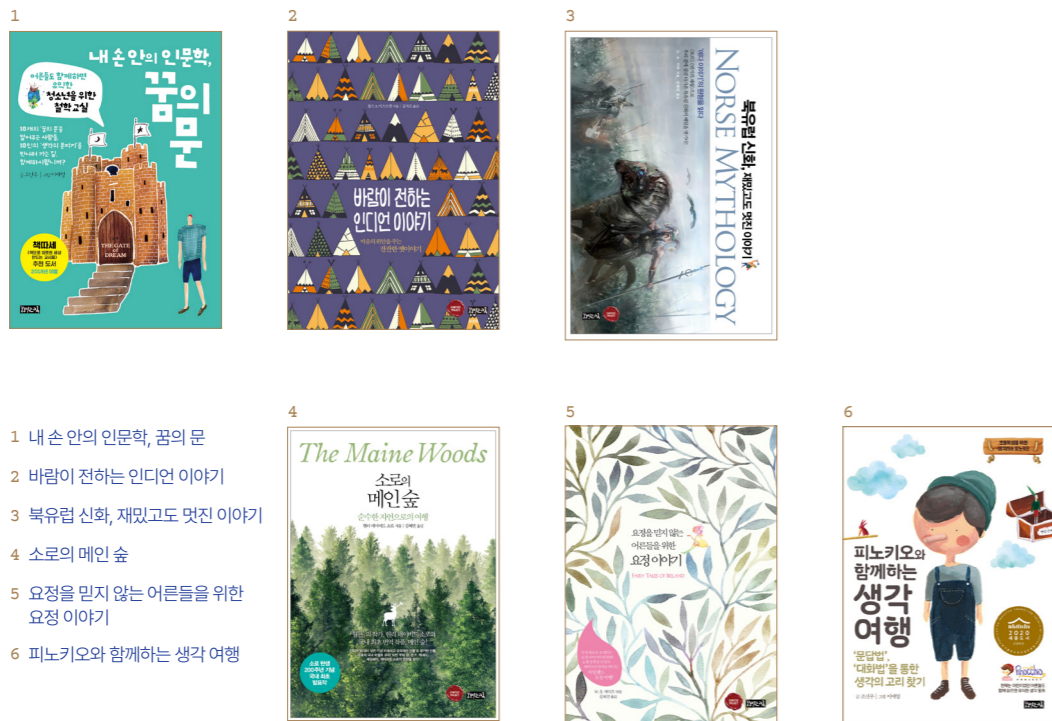
5. 수상자

박은덕 · 조선우 · 안경숙 · 김종진 · 박승수



영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중등 철학 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광고회사 기획자·카피라이터와 교육 전문지(교육신보) 기자(출입처: 서울시교육청)를 거쳐 출판계에 들어왔다. 편집자와 편집장을 거쳐 2012년, 1인 출판사 '책읽는귀족'을 설립해 대표 겸 편집자, 출판기획자, 작가로 10여 년 이상 활동해 왔고, 편집자로서의 경력은 약 20년에 이른다. 그동안 100여 종 이상의 도서를 기획·편집·제작했으며, 그중 다수가 출판진흥원과 주요 도서관의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 『내 손 안의 인문학, 꿈의 문』은 책마세 추천 도서(2018)로, 『피노키오와 함께하는 생각 여행』과 『피노키오야, 경제랑 같이 길을 떠나자』는 세종도서 교양 부문(2020)에 선정되었다. 또한 『나는 인디고 아이이다』, 『패턴 인식 독서법』, 『돌하르방에게 길을 묻다』, 『우리는 어떻게 복소를 리에가 될까』 등은 2020~2024년 출판진흥원의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지금까지 총 22종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작



- 1 내 손 안의 인문학, 꿈의 문
- 2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
- 3 북유럽 신화, 재밋고도 멋진 이야기
- 4 소로의 메인 숲
- 5 요정을 믿지 않는 어른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
- 6 피노키오와 함께하는 생각 여행

[12]

[13]

이번 편집자상 수상은 저에게 책으로 쌓아 올린 시간이 금빛 발자국으로 남는 순간입니다. 사막 같은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책의 탑 앞에 이 영광스러운 수상은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편집자로 걸어온 길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상은 제 삶의 신념과 깊이 맞닿아 있으며, 출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지나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부터 간절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라고 토닥토닥하는 그 격려와 응원의 손길이 늘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경계에 선 세계 이 상은 멈추지 말고 더 멀리 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프랑스어 문화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어 한국어 교원 자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파리로 건너가 언어와 책을 잇는 새로운 창작 교육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낯선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써내고 책으로 엮는 과정, 그것이 앞으로 제가 이어갈 또 하나의 출판 실험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편집자의 길은 때로 문장의 미로를 헤쳐 나가는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책을 만든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을 구조화하고, 한 시대의 감각을 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편집자는 그 가운데에서 사유의 동선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문장의 완성에 머무는 이가 아니라, 책이라는 형식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출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잇는 것처럼 치열하고 비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는 책이 팔리지 않고 도서관의 문이 닫히며 출판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고 미래를 생각하기조차 두려웠던 그 시간 속에서도, 책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수상자 소감

편집자는 언어의 연금술사라 믿습니다. 작가가 흘려낸 원석 같은 문장을 불러내어 불필요한 찌꺼기를 걸어내고, 도가니 속에서 오래 끓이며 단어를 다듬고 색깔을 입히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은 드러나지 않지만, 편집자의 손길은 책 한 권, 한 권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편집자의 진심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그 물음이 저를 멈추지 않게 하고, 책의 발자국마다 시간의 흔적을 새겨 넣게 합니다.

오늘 이 상은 그 보이지 않는 연금술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출판사 대표로서 걸어왔던 세월 속에 쌓인 마음의 짐도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그 덕분에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를 새삼 확인합니다.

또한 이 상은, 척박한 출판 풍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출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강도 속에 들어가 맨손으로 광맥을 두드리는 광부들이며, 매일 원고라는 납덩이를 불 속에 던져 넣는 연금술사들입니다.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영광일 뿐만 아니라, 혹독한 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책의 순수함을 지켜 온 동료 출판인들의 영예이기도 합니다.

이 금빛 훈장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파리의 여정에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낯선 길 위에서도 이 훈장은 다시 불을 지피는 기억이 될 것이며, 더 넓은 세계에서 책이라는 금빛 물결을 이어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언어는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오래된 문이며, 편집자는 그 문을 열어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책을 통해 사람과 세계를 잇는 편집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상을 허락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5. 수상자

박은덕 · 조선우 · 안경숙 · 김종진 · 박승수



1999년부터 어린이책 편집자로 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2002년 웅진씽크빅에 입사해 전집뿐만 아니라 유아동 단행본 브랜드인 웅진주니어의 그림책, 아동 문학서, 논픽션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어린이책을 만들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그림책’ 시리즈, 어린이 기초 교양 ‘재미만만 한국사’, ‘재미만만 그리스로마신화’ 시리즈, 매일 읽기를 돕는 ‘365’ 시리즈 등을 기획했다. 대표 편집 도서로는 전설 시리즈로 지칭되는 『친구의 전설』(이지은 글, 그림), 『태양 왕 수바』(이지은 글, 그림), 『먹어 보면 알지』(이지은 글, 그림)를 비롯해 『엄마 도감』(권정민 글, 그림), 『시계탕』(권정민 글, 그림), 『엄마 왜 안 와』(고정순 글, 그림), 『나의 구석』(조오 글, 그림), 『어느 날』(이적 글, 김승연 그림), 『농부 달력』(김선진 글, 그림), 『달리다 보면』(김지안 글, 그림), 『퓨마의 돌』(이조은 글, 주정민 그림), 『영원의 얼굴』(소윤경 글, 그림) 등이 있다.

대표작



- 1 나의 구석
- 2 농부달력
- 3 어느 날
- 4 엄마도감
- 5 친구의 전설
- 6 퓨마의 돌

[14]

[15]

그저 책이 좋아서 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하면 할수록 편집자로 살아 온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시간과 열정에 대한 응답인 듯, 편집자상의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편집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때로는 공기 중에 떠도는 목소리와 이야기들을 책이라는 매체에 담아 내는 모든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봄부터 시작했으니 햇수로 봐도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통해 나누고픈 이야기들은 갈수록 가치를 쳐서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좋아서라는 이유 외에, 제가 왜 편집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크게 깨닫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어린이 청소년 부문에 『엄마도감』이 선정되었고, 저는 이 책의 편집을 맡아 진행했기에 작가와 함께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분들의 수상 소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별안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그래, 책이란 게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번쩍었어요.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다양했습니다. 책이 완성되기까지 인고의 시간들에 대한 회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 책의 소재가 된 경험과 책을 짓는 과정에서 함께한 인연들까지, 유창한 언변이든 떨림을 가다듬고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든, 한 치의 가식 없이 진심을 눌러담은 이야기들이 크고 작고 모양도 제각각인 활자가 되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일한 당위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각자의 이름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건네고 타자의 작은 목소리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세계가 책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책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애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수상자 소감

오랜 시간 동안 ‘편집자’로 일해 왔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환희와 팽팽한 긴장감을 동시에 맛봅니다. 이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매력적인 밀당이 또 있을까요?

요즘에는 책이 출발점이 되어 전시, 공연, 음악 등 다채로운 문화로 확장되고, k 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더 활발히 소개되며 지평을 넓혀갈 수 있게 되어 한층 더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권 국가로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다면, 영미권, 유럽 국가로의 수출을 비롯해 해외 수상 및 선정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친구의 전설』은 미국, 일본, 브라질, 이탈리아 등 14개국에, 『나의 구석』은 미국, 독일, 러시아 등 9개국에 수출되어 여러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바람이 있다면 작가와 편집자, 디자이너, 제작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협업을 통해 태어난 우리의 책이 쇠를 거듭하며 오래도록 독자들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친애하고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온 동료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5. 수상자

박은덕 · 조선우 · 안경숙 · 김종진 · 박승수



2004년 공무원 수험서를 출판하는 고시연구원에 입사해 3년 동안 교정, 교열 실무를 익혔다. 창의성과 기획력을 조금 더 기를 수 있는 곳을 찾아 단행본 출판사 쪽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2006년, 삼인출판사에 입사했다. 2010년부터 삼인출판사에서 편집장 직무를 맡아 일했고 2016년, 10년 동안 일한 삼인출판사를 떠난 그해, 씨앤톡에 입사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책을 기획, 편집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리틀씨앤톡에서 출간하는 어린이 대상 창작 동화와 지식 책, 블랙홀에서 출간하는 청소년 대상 소설과 지식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위인이 독자 또래 어린이가 되어 우리 반에 온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으로 기획한 ‘우리 반 시리즈’, 어린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주고자 시작한 ‘모두의 동화 시리즈’, 지식 전달과 함께 생각하는 힘을 함께 기르자는 목표로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어린이 시리즈’ 등 여러 시리즈를 몇 년 동안 기획, 편집하고 있다.

대표작



- 1 나팔꽃이 말했어요
- 2 지훈 쌤의 사회 교실_민주주의 수업
- 3 불 꺼진 아파트의 아이들
- 4 우리 가족에서 찾은 노동 인권 이야기
- 5 우리 반 다빈치
- 6 정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16]

[17]

‘한국출판편집자상’. 그중에서도 특별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상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출판 편집’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럼 ‘특별하다’라는 수식어는 어디에, 어떤 의미로 붙이는 게 좋을지 생각해봅니다.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특별히 할 것인지, 앞으로 잘 찾아보라는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꿈을 실물화하는 일

종이책은 물성을 지닌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건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심성과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게 편집자의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꿈을 실체화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며칠 전 원고를 보다가 인간의 뇌를 업로드해, 몸은 죽더라도 의식은 영원히 살려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경험과 생각, 기억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의식을 계속해서 가동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굳이 왜 그래야 하지? 책이 있는데?’ 불멸의 유전자를 남기는 게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자 욕구라면, 인류는 이미 책을 통해 자신의 전부를 남기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인 것이지요.

평소 작가님들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지금 집필하시는 원고가 책이 될 경우, 그 영향력은 현세에 그치지 않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책을 남기는 이상, 죽더라도 죽지 못해요. 그걸 기억해주세요.”라고요. 우리는 이미 책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을 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미와 책임

책을 편집하는 재미와 책임감도 바로 그 지점에서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통째로 업로드해두더라도, 누구라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하거나 습득하기 어렵겠

수상자 소감

지요. 인류, 또는 개개인에게 중요한 지식이나 감성만 추릴 필요가 생깁니다. 한 작가가 책 한 권을 집필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적당한 분량으로 그려내는 작업이 그 작가의 머릿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원고를 받아, 한 차례 더 거르고 추려서 독자의 머리와 마음에 남을 ‘책’이라는 물체로 가공하는 게 편집자의 일입니다.

어떤 기획을 하느냐, 단락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문장,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만들지만 하고 아무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으니, 독자를 유혹할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아, 재밌다.”, “아, 죽겠네.” 소리가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써놓고 보니 저는 이 일이 재밌어 죽겠는 모양입니다.

어떤 작가의 어떤 생각을 어떤 형태로 빚어낼 것인지를 상상하는 건,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떻게 편집하고 가공해야, 작가가 전달하려는 말이 독자에게 제대로 가 닿을지를 고민하는 건 늘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책을 만들어낸다는 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에게는 고양이다움이, 토마토에게는 토마토다움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책을 만들고 읽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인간다운 일을 재밌어 죽을 정도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상까지 탈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씨앤톡 출판사와 동행해주시는 작가님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곤 대표님, 윤정에 실장님, 모자란 제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 데 이어, 맑은 날도 굵은 날도 한결같은 용기와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휴, 조정수, 민경원, 이재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상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이 특별한 상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을 편집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해낼 수 있어요.

5. 수상자

박은덕 · 조선우 · 안경숙 · 김종진 · 박승수

특별상
박승수(朴勝秀)



2007년, 대학 졸업 후 첫 회사로 자유아카데미에 입사한 이후 매년 10종 이상, 약 200종의 대학교 교재 및 학술서를 기획 및 편집하며 18년째 같은 자리에서 편집자로, 또 현재는 편집부 부장으로 동료들을 이끌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요 편집 도서로는 대부분 번역서가 주를 이뤘던 화학 교재 시장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국내 저자 교재로서 경쟁력을 갖췄던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이 있으며, 『질병이 탄생시킨 명화』 등을 필두로 2008년부터 약 15년간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진행했던 『석학, 과학기술을 말하다』 시리즈(전 42권), 어려운 과학 내용을 대중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과학 교양서 『복잡계 과학 이야기』, 『과학문화, 난쟁이와 거인의 노래』, 『과학기술과 사회를 만든 사람들』, 최근 AI 시대에 맞춰 기획했던 데이터과학 도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AI 대비 파이썬 기초 입문서』, 『생성형 AI 플레이북: 텍스트에서 멀티미디어까지』 등이 있다.

대표작



- 1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
- 2 질병이 탄생시킨 명화
- 3 복잡계 과학 이야기
- 4 과학문화, 난쟁이와 거인의 노래
- 5 과학기술과 사회를 만든 사람들
- 6 화학으로 읽는 플라스틱 연대기

[18]

[19]

회사의 권유로 이번 한국출판편집자상에 신청하게 되었지만, 명성 있고 훌륭한 편집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참가에 의의를 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편집자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편집했던 책들이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을 때 편집자로서 이보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영광입니다.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판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저의 목표는 '좋은 편집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부를 충분히 해야만 했고, 입사 후 5년 차 때까지 틈이 나는 대로 출판종합학교인 서울북인스티튜트에서 재직자 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정교열> 과정부터 <난문/번역문 다루기>, <여러 분야의 실전문장다루기>, <출판제작>, <출판기획>, <편집디자인>, <전자책제작실무>, <출판마케팅>, <표지디자인> 과정까지 제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수료하는 등 경쟁력 있는 좋은 편집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화학, 통계학, 물리학 등 과학 분야 학술서를 다루는 자유아카데미에서 좋은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역시 충분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출퇴근 버스에 앉아 주기율표를 보며 원소기호를 외우고, 기초통계 책을 뒤적이며 수학 계산을 하는 등 학생 때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공부하였고 이를 통해 교정볼 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편집자가 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번에 좋은 상을 받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교재 및 학술서 편집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려운 학술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용어들은 알기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들은 간결한 문장이 되도록 교정·교열·윤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상자 소감

또한 학술서는 '정확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고에 있는 숫자, 단위 등 정보의 정확성을 여러 번 체크하고 있으며,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교정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획 및 편집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꼽으라면, 2009년 출간했던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김희준)입니다. 화학 분야의 대학교재 점유율을 번역서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던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교재를 개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기존 번역서들에 뒤지지 않는 책을 만들 수 있었기에 편집자로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려운 과학 내용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쉬운 과학 교양서 및 시대의 흐름에 맞는 AI 관련 데이터과학 도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면접 봤던 회사에서 1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만난 것이 저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이직도 생각하게 될텐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고 훌륭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신 김지영 대표님과 김병준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판편집자상에 멋진 추천서를 써주신 고세규 대표님, 언제나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정숙진 상무님, 그리고 자유아카데미 동료들에게도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을 개발하고 성심껏 편집하겠습니다.

6. 한국출판편집자상 역대 수상자

제1회

대상 | 이승우
금상 | 이경아
금상 | 김세원

제2회

대상 | 이종백
금상 | 조수정
금상 | 김태희
특별상(개인) | 장경식
특별상(출판사) | 수류산방

[20]

제3회

대상 | 김선정
금상 | 김민기
금상 | 김소영
공로상 | 광진희
특별상 | 사기순
특별상 | 김장성
특별상 | 박영신
특별상 | 박혜진

Address.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201호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Tel.

02-732-1434~5

Fax.

02-722-5406

E-mail.

tkpfs@daum.net

Website.

www.tkpf.or.kr

